

데스크 시각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임동혁 시인의 ‘너희들의 조사와 애도를 거부한다’는 시는 답답한 우리 심경을 대변한다. “나는 객관의 거리를 확보한 자의 기도나/ 너의 교활함과 변신을 변호해 줄 세월과/ 피 묻은 흰 손으로 바치는 꽃 타래를 사절한다/ 능숙하고 매끄러운 문장의 조사를 거부한다...너희들이 써 나가는 모든 현대사 위에/ 너희들의 편견과 간교함을 변호하는 붉은 햇바다/ 당대를 평화의 시대라고 규정하는/ 안일함과 권태와 식곤증에, 그리고 너와 나의 얽연한 패배와 냉소 위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목을대를 치는/ 너희들의 찬사와 현화를 거부한다”

시인은 국립5·18민주묘지에 들어서는 정객들의 허위와 배신을 꿰뚫어보고 예견한 듯 까발린다. 그들이 망월묘역에서 항을 사르거나 뒤돌아서 나올 때도 한결같이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앞뒤 다른 공허한 약속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12·3계엄’으로 하룻밤에 몽개버렸다. 대통령 취임 첫 해 5·18 기념식에서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체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오월의 ‘명령’대로 국민적

은펜칼럼



심명섭
국학자료원 상임위원·행정학박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해 약 1025만명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방문해보면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시니어일 정도로 이들의 이용 비율이 높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이용자의 95% 이상이 시니어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를 반영해 도서관들은 큰 글자 도서 비치, 톨보기와 독서대 제공,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시니어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부 열람실에는 ‘시니어 먼저’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시니어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은행권 또한 시니어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를 위해 ‘맞춤 디지털 기기(ATM)’를 설치하고 직접 가정보나 시설로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상속신탁사업, 유언대응 신탁상품, 상속 집행을 돕는 유산정리

기 고



황옥주
수필가

사람은 인연 따라 움직인다. 인연이 선연(善緣)이라면 이별 뒤에도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게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이른 봄, 소중환 사람들과 자은도를 다녀왔다. 신실한 믿음을 주고 먼 임지로 떠나신 신부님을 만나보고자 해서다. 실전은 빠들수록 좋고 짧은 이별이라도 계산 없는 정 나눔은 해묵은 해후만큼이나 설렌다.

점심을 마치고 신부님 안내로 섬 일주에 나섰다. 산길에 들어서니 수줍은 듯 얼굴 내민 꽃꽃들이 예쁘다. 일주 마지막에 다다른 곳은 분계라는 해수욕장이다. 모래알을 희롱하는 물결이며 햇빛에 반짝이는 윤슬, 썰물에 떠내려갈 듯한 작은 섬들, 솔바람 소리가 정겹다.

모래밭을 반라로 거니는 나를 그려보는 사이 기이한 형상의 소나무가 나타난다. ‘여인송 전설’의 주인공이다. 그 앞에 세워 둔 안내문의 내용인즉, “옛날 분계마을에 고기잡이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다.

5·18 배신의 정치학

‘저항’에 직면해 대통령에서 쫓겨났다. 나라를 파탄지경으로 몰고간 그가 반격전과 한강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은 국민을 아연하게 만들었다.

이 당 사람들은 도대체 반성과 사과를 모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최근 망월묘역에서 “제게 고함치는 사람들이 5월의 아픔을 알겠나”라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내란 공범은 광주를 떠나라”는 시민에 대한 반박이다. 정작 자신의 이름을 건 선대위가 5월 학살자로 지목되는 정호용 전 국방부장관을 선거대책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취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었다.

정 전 국방부장관은 전두환·노태우 등과 육사 동기로, 1980년 6월 20일 충무부공훈장을 받았으며 2006년에 박탈당한 장본인이다. 정 전 장관 논란을 외면하던 그가 박관현 열사의 묘역에서는 눈물을 보였다. 그 진심과 진정을 우리는 가능하기 어렵다. 한때 광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 5·18 묘역을 방문해 “앞으로도 계속 전두환이라는 이름 석 자에 분노만 하며 살 수는 없다”면서 “용서와 화해, 국민 통합과 역사 발전, 그 중심에 광주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용서를 주장하던 그는 지금 내란세력과 땃줄이 닿아 있는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다.

돌이켜보면 5·18 정신을 실천했던 정치인들은 화려한 찬사를 늘어놓거나 하된 소리를 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5년 5·18민주묘지 방명록에 ‘추모 5·18 광주 민주영령’이라고 적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뒤인 2007년 ‘강물처럼’이라고 썼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06년 방명록에 ‘眞實·自由·正義(진실·자유·정의)’라고 기록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정치인들의 5월 클리셰는 예견됐던 일이다. 5·18이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고 공

명하던 국민이 기억하는 ‘위령제’에서 국가기념일로 옮겨갔을 때부터 시작됐다. 항거와 추모가 제도적인 틀에 갇히고 정치가 전면에 나서는 순간부터 5월은 소비되고 오·남용 됐다. 망월묘역에 들러 비석을 쓰다듬고 눈물 흘리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뻔한 드라마보다 더 식상하다. 그들의 참배는 최소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요식행위일 뿐이다.

정치인 말보다 실천 지켜봐야

5월의 성소(聖所)에서 오월영령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유가족의 아픔을 공유하는 질적인 변화는 절대 없다. 단지 광주로 파고들려는 정치적인 서사다. 물론 ‘부미방 사건’(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문부식과 같은 연대의식은 없다. “만일 광주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도 이젠 아득하다. 5·18로부터 45년이 흘렀다. 살아 남은 자의 부채의식이나 공감의 연대는 젊은 세대에게는 낡은 언어가 됐다. 정치로 밥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 연대의 언어가 의미를 갖는다고 기대하지는 말자.

이진영 전남대 교수는 ‘애도의 정치학’에서 ‘5월의 정치학’을 예리하게 포착해낸다. “애도의 정치가 항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산 자가 죽은 자를 위로 한다는 ‘위령’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주체의 의도적 책략에 따라 위령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다.”

5·18 묘역을 드나드는 정치인의 제스처를 보고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들의 언어와 실천을 눈부름뜨고 지켜보는 것이 광주가 지켜야 할 최선이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포퓰리즘 시니어 정책

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으며 시니어 고객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정치권도 시니어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관심이 주로 선거철에만 집중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철 밭 버스 무임승차 제도와 같은 교통 관련 공약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시니어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등장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무임승차 혜택이 도시권 지하철역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시니어에게만 집중되어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 65세 이상 시니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교통바우처를 제공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버스 무임승차제 실시 공약이 나왔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니어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하철이 없는 비도시권 지역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에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를 시행했고 그 결과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은 오롯이 지자체와 지하철 운영기관이 부담하게 되었다. 제도 시행 당시와 달리 현재는 65세 이상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운영 적자는 매년 심화되고 있으며 결국 자본잠식으로 이어질 경우 중앙

정부의 국제 지원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공영버스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개선보다는 단기적인 재정 투입으로 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특정 시군에 한정해 무임승차를 허용하더라도 승객 수는 늘어나는 반면 요금 수입은 감소해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이동권 보장, 나아가 사회 활동 증진, 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익 감소라는 명확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러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소홀히 한 채 고령층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해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지, 축소,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반복됐지만 정작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근본적 대안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결국 시니어층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시니어를 위한 정책이 단순히 혜택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야 한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현실적인 재정 부담과 역할 분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인기나 선거를 의식한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논의와 제도 정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자은도 여인송(女人松) 전설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고 바다에 나간 남편이 큰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 후회한 부인은 날마다 이곳 솔동에 올라 우각도 너머 수평선을 바라보며 남편의 무사 귀환을 애타게 빌며 기다렸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부인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물구나무를 서서 나무를 보니 배를 타고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다음 날부터 부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닷가 제일 큰 소나무에 올라 남편이 배를 타고 오는 환상을 그려보곤 하였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내는 소나무에서 거꾸로 떨어져 동사하고 말았다. 그 후 돌아온 남편이 아내의 시신을 수습하여 소나무 아래에 묻어주자 나무는 거꾸로 선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를 닮은 여인송으로 변하여 지금까지 남아있다. (후략)전설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 인물, 지명 등 조금 색다르다 싶으면 그럴듯한 상상력을 동원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상을 엮어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맘속에 창작 욕망을 품고 있다. 그 욕망이 시나 소설, 수필 등을 잉태하는 문학의 씨다. 씨의 싹이 터야 구실을 한다. ‘25사’의 작가 게오르규는 “달이나 바람을 교수형에 처할 수 없는 것처럼 전설을 처벌할 수는 없다. 전설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기 때문이다. 전설은 창작이기 때문에 어떤 장군도 거기에 대적할 수 없다”고 설파한 바 있다. 전설은 그 대상을 무

엇으로 삼았든 결국 사람 얘기며 결말은 애절하다. 고뇌와 눈물에 찢든 삶, 반전이 없는 불가역적 비극의 종말, 이것이 전설의 특징이고 구성상 전락이며 노리는 기대일 터이다.

안내문을 거듭 읽고 나니 마음이 숙연해진다. 어둠이 바다를 삼킬 때까지 기다리다 지친 여인은 바람에 휘둘 지듯 힘없이 떨어졌으리라. 소나무 모습은 엉락 없는 물구나무선 여자의 나신이다. 방사림은 거의 모두 뿌리가 드러나 있다. 파도와 바람과 빗물에 꺾이며 살아온 고난의 흔적이다. 일행 중 한 분이 여인송을 가리켜 백년쯤은 됐으리라 하기에 나는 단연 오백 년은 넘으리라 장담했다.

50년 전쯤 됐을까? 그 송수권 시인의 안내로 지리산 뿔치산 부대 분거지인 동굴 사무실을 답사한 적이 있다. 왼쪽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면 하늘 아래 첫 동네에 ‘천년송’이 있다기에 시간 부족 경고도 무시한 채 세 사람만 나섰다. 서둘러 이르러보니 ‘천년송’이란 기록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 퍼뜩 그때 기억이 떠올라 5백 년을 말했으나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 글을 쓰면서 신안군 관광과에 물었더니 2백 년은 넘었으나 안내판 설치는 2011년이란단다. 내 추량은 한참 빗나간 엉터리였다. 멀리서 작은 파도를 앞세우고 밀물도 몰려온다. 쫓기듯 송림을 떠나는 발걸이 마냥 무겁다. 여인송과 우각도가 눈에 밟혀서...

社 說

민주당 ‘우리동네 공약’ 실현 점검이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의 골목 골목까지 챙기기 위해 내놓은 ‘우리동네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다. ‘우리동네 공약’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처음 도입한 것으로 이번 21대 대선에서 구체화 됐다. 광역 단위의 거창하고 큰 공약도 좋지만 시군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고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광주의 경우 광역 단위의 7개 공약과 함께 5개 자치구별로 5~7개씩 총 34개의 우리동네 공약이 발표됐다. 전남에서도 22개 시군의 핵심 과제를 포함해 총 116개의 공약이 우리동네 공약에 포함됐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광주에선 남구의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방안 모색과 광산구의 송정역세권 경제문화복합허브 조성 지원 등이 있고 전남에선 고흥의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해남의 솔라시도 재생에너지 연계 에너

지고속도로 구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공약의 개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광주·전남만 150개에 이르는 공약 모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누구보다도 준비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대선때부터 실현해보고 싶은 공약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문제는 좋은 의도 만큼 처음 시도되는 우리동네 공약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있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공약(公約)을 흔히 공약(空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내용은 거창한데 나중에는 유야무야 돼 버리는 사례를 많이 본 탓이다. 우리동네 공약이 실현되도록 중간중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다. 민주당 사·도당은 물론 자치단체들은 선거 이후에도 우리동네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진통 겪는 광주 ‘차 없는 거리’ 운용의 묘를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차 없는 거리’ 운영을 두고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자치단체는 걷고 싶은 도시가 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상인들은 교통 통제로 장사가 안된다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며칠 전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실시한 차 없는 거리 행사도 상인들의 반발로 축소해 진행됐다. 5·18 45주년을 맞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지난 17일~18일 이틀 동안 금남로 일대에서 5·18 전야제 행사를 추진했다가 총장로1·2·3가 상인회가 ‘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자 첫째 날 밤 늦게까지 행사를 마무리했다. 기념행사위원회와 시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12·3 비상계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어느 해보다 많은 외지인들이 광주를 찾았는데 광주를 알리는 축제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인들도 할 말은 있다. 광주시 동구가

올해 3월부터 매달 첫째 주 일요일 금남로 도로를 통제하고 ‘걷자라’ 행사를 열고 있지만 오히려 손님이 줄어 이들간의 전야제 행사를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사실 광주시는 2000년 전후부터 금남로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추진하려다 상인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 올해 동구가 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는 남구 무등시장 차 없는 거리 시행 이후 방문객이 65% 늘었다고 하지만 상인들은 믿지 않고 있다. 상인들도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공영주차장 확보도 선행 조건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차 없는 거리는 결국 운용의 묘를 살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無 等 鼓

‘요즘 어른’이라는 신조어가 부상하고 있다.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와 1975년에서 1984년 사이에 태어난 X세대를 아우르는 이 말은, 사회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정체성을 분명히 갖지 못한 ‘중간 세대’를 가리킨다.

일터에선 후배들을 이끌고, 가정에선 부모와 자식을 모두 챙겨야 하는 이 세대는 늘 누군가의 뒤를 받치며 살아간다. 나 역시 그들이 말하는 요즘 어른의 한복판에 서 있다. 위로부터 책임을 부여받고 아래로는 기대를 받는, 말 그대로 ‘요즘 어른’ 중심을 잡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어른이 되어가는 길이 아닐까. 얼마 전, 누군가 내게 이런 말을 해주 적이 있다. “스스로 작아질 필요 없어. 불완전하고, 때론 흔들리는 지금의 너 그대로 충분히 괜찮아. 이미 누군가에게는 큰 어른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 비록 네가 그걸 아직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이야.” 그 말에 조금은 위로를 느꼈다. 아직 서툴지만 정작 스스로 어른이라 느끼지 못하는 이들. 나이만 먹었지, 어느 날도 ‘어른이 된 날’은 없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

/이보람 예방부 차장 bora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예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